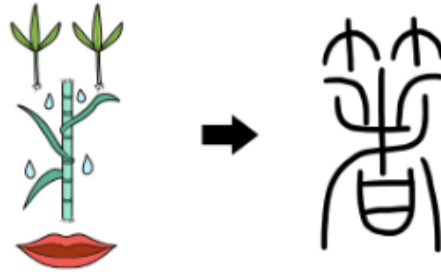


3(2)
-
351

형성문자 ①



著

나타날
저:

著자는 '분명하다'나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著자는 사전에 언급된 뜻만 해도 20개가 넘는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著(나타날 저)자나 箸(젓가락 저)자, 著(불을 착)자가 서로 의미를 혼용했었기 때문이다. 후대에는 글자에 따라 뜻을 분리했지만, 사전상으로는 여전히 여러 의미가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著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은 '나타나다'와 '분명하다', '저술하다'이다. 著자는 단순히 여러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기에 글자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

著

금문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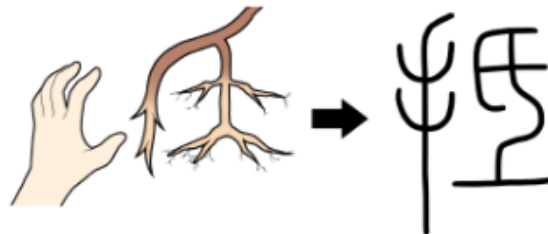
소전

著

해서

3(2)
-
352

회의문자 ①



抵

막을[抗]
저:

抵자는 '거스르다'나 '막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스르다'라는 것은 저항한다는 뜻이다. 抵자는 手(손 수)자와 底(근본 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底자는 땅속으로 뻗은 나무뿌리를 그린 것으로 '근본'이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底자에 手자를 결합한 抵자는 손으로 철저히 막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무언가를 막는 행위는 남을 배척하는 것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후에 '배척하다'나 '거절하다'라는 뜻을 파생시키게 되었다.

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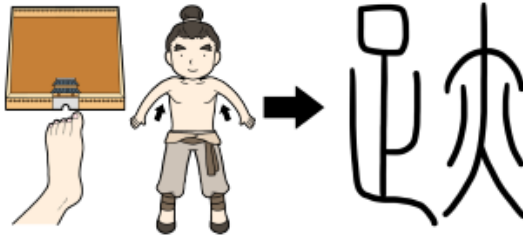
소전

抵

해서

3(2)
-
353

회의문자 ①



跡

발자취
적

跡자는 '자취'나 '업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跡자는 足(발 족)자와 亦(또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亦자는 사람의 겨드랑이를 뜻하는 지사문자(指事文字)로 '액취'라는 뜻이 있었다. 액취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말한다. 여기에 발을 뜻하는 足자가 더해진 跡자는 '발의 흔적'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跡자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표시나 자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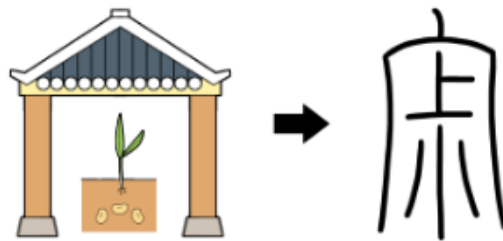
소전

跡

해서

3(2)
-
354

회의문자 ①



寂

고요할
적

寂자는 '고요하다'나 '쓸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寂자는 宀(집 면)자와 叔(아재비 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叔자는 떨어진 콩을 줍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적막하다'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寂자가 아닌 𡇗(콩 숙)자가 쓰였었다. 𡇗자는 콩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소전에 나온 모습대로라면 寂자는 집안에 콩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집안이 너무 조용하여 "콩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寂자는 주위가 매우 조용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寂

소전

寂

해서

3(2)
-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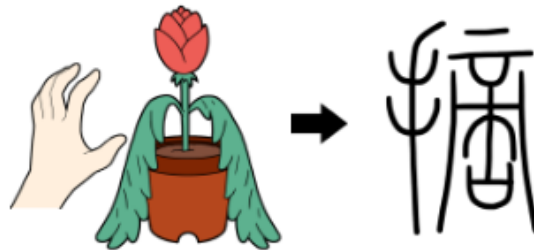
笛

피리 적

형성문자 ①

뜻을 나타내는 대죽(竹 ≡ 대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을 가지는 由(유→적)으로 이루어짐.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 악기(樂器)를 말함.

3(2)
-
356



회의문자 ①

摘

딸[手收] 적

摘자는 '(손가락으로)따다'나 '들추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摘자는 手(손 수)자와 摘(밑둥 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摘자는 화초 아래에 입을 그린 것으로 '밑둥'이나 '뿌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摘자는 이렇게 화초를 그린 摘자에 手자를 더한 것으로 화초를 이리저리 들춰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지금은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어떠한 사실을 들춰내거나 손으로 들쭉신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摘

소전

摘

해서

3(2)
-
357

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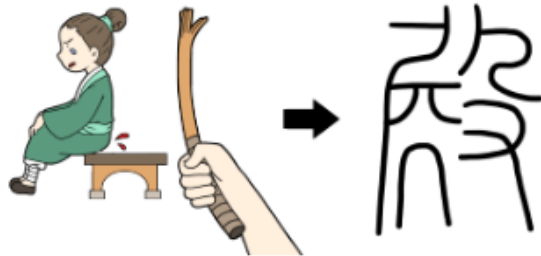
자취 적

형성문자 ①

뜻을 나타내는 발족(足 → 발)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자취란 뜻을 나타내기 위한 責(책→적)으로 이루어짐. 전(轉)하여 일의 자취의 뜻으로 쓰임.

출처 :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3(2)
-
358



회의문자 ①

殿

전각 전:

殿자는 '큰 집'이나 '궁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殿자는 尸(주검 시)자와 共(함께 공)자, 殳(몽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殿자의 본래 의미는 '불기를 맞다'였다. 殿자의 소전을 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뒤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불기를 때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殿자는 '엉덩이'를 뜻하는 臀(불기 둔)자와 殳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殿자는 이렇게 엉덩이에 매질하는 모습에서 '불기를 맞다'를 뜻했었지만, 후에 뜻이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큰 집'이나 '궁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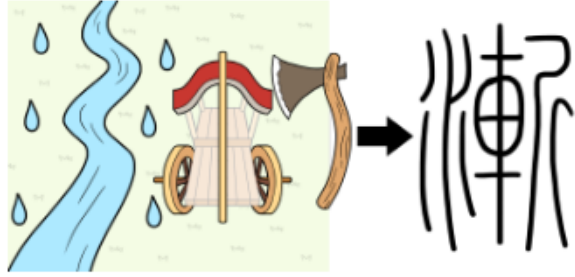
소전

殿

해서

3(2)
-
359

형성문자 ①



漸

점점 점:

漸자는 '점차적'이나 '차츰', '천천히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漸자는 水(물 수)자와 斬(벨 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斬자는 '베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점'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漸자는 본래 중국 저장성(浙江省)에 있는 첸탕강(錢塘江)의 옛 강 이름에서 유래한 글자이다. 첸탕강은 저장성에서 가장 큰 강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첸슈이(漸水)라고 불렸다. 그러나 강의 유속이 느렸었는지 후에 '차츰'이나 '점점', '천천히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漸

소전

漸

해서

3(2)
-
360

회의문자 ①



淨

깨끗할
정

淨자는 '깨끗하다'나 '맑다', '사념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淨자는 水(물 수)자와 爭(다툼 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爭자는 줄을 놓고 서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투다'라는 뜻이 있다. 淨자는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뜻한다. 오염된 것을 걸러내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화(淨化)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淨자에 쓰인 爭자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화과정을 다툼(爭)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淨

소전

淨

해서